



로덱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요일 4:18)]

- 2022. 08. 14 성령강림절 열한째주일
- 오전 11시
- 친구사이 사정전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통일 533)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

미래와 소망

Be Thou my vision

Irish Hymn, c. 8th Century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주밖에 내가 사모함 이 없나이다
(시 73:25)

SLANE: 10.10.10.10.
Traditional Irish Melody
Harm. by C. Young, 1963

보통으로

1.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2. 내지세영
3. 맘해상원
4. 의의의한

주주영주
여여광남
소말나내
망스한승

되으보리
소로여의
서서도주

주언언하
없제제
이나나의
모내주기

든안님쁨
일에은을
헛계나주
되십의읍

어소기소
라서업서

밤주주어
에는남떠
나내만한
낮아내고

에버맘난
나지에이
주나계탁
님은시쳐

생아오와
각들니도

잘주영만
때안원유
나에한의
깁내주주

때가남여
함늘참소
계함귀망
하계하되

소하셔소
서네라서
아
멘

찬양
(다 같이)

[2022.05.22 로템 주일예배 대표기도문 - 진원 -]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눈부신 햇살과, 서늘한 바람, 화창한 하루하루를 누리며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에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만 덮고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햇살은 이렇게 눈이 부신데, 눈부신 햇살 이면에 우리들의 그림자와 아픔이 너무나도 짙어, 무너지고 탄식할 때도 무척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고통의 참상,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된 생명체들의 계속 되는 절규, 자극적인 기사에 성소수자를 명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들, 혐오 정치를 일삼는 교회들, 가정과 사회에서 계속되는 정신적 신체적 폭력들.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 했던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지,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지도 못한 채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시는 고독한 분들, 비존재로 취급 당하며 숨 죽이며 자신을 패싱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부르짖으셨던 그 울부짖음을 토로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봐주십시오.

공동기도

역사를 진보케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삶을 드린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잊지 말아옵소서.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자랑되사 한계를 뛰어넘어 차별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차별없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전해져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있다고 하는 자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상대를 심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굽어진 우리의 허리를 곧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 번 우리가 진정성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 순간 삼위일체이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2-24절]

22.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23.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흠에서 나왔으므로, 흠을 갈게 하셨다.

24.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9-21절]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20.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21.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 302)

설교
(한승민 목사)

[단절과 연결, 그 사이]

헌금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공동기도문]

(† 표시는 인도자, ○ 표시는 다 같이)

†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임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1. 예배 후에 **조별모임**이 있습니다.
2. **2022년 8월 20~21일 (토,일),**
서울 서대문구 이제홀에서
로템나무그늘교회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익하고 은혜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밴드 공지를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파송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